리서치센터 투자전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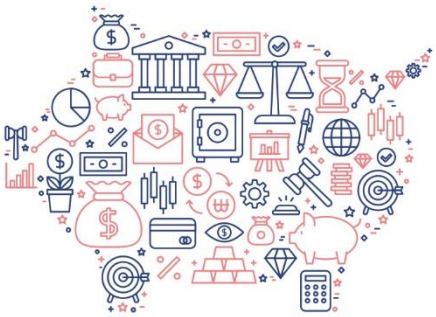
ETF & Flow

E T F

vol. 4 2026. 04. 13.

Global Fund Flow

불가피한 인플레이션,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Point 1. Weekly Fund Flow Review
Point 2. Global Fund Flow Brief
Point 3. Global Equity Fund Flow
Point 4. Bond/Commodity Fund Flow

F

LS증권

Fund Flow/ETF/중국
Analyst 백관열
kyb1006@ls-sec.co.kr

LS증권 리서치센터

Vol. 4 2026.4.2 (목) ~ 2026.4.8 (수)

이 자료는 LSEG에서 제공하는 Lipper Fund Flow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Global Fund Flow는 위의 기간 동안 주간/일간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주간 Fund Flow 데이터의 경우 2026.4.2 (목) ~ 2026.4.8 (수)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Contents

Point 1.	Weekly Fund Flow Review	3
Point 2.	Global Fund Flow Brief	6
Point 3.	Global Equity Fund Flow	10
Point 4.	Global Bond/Commodity Fund Flow	15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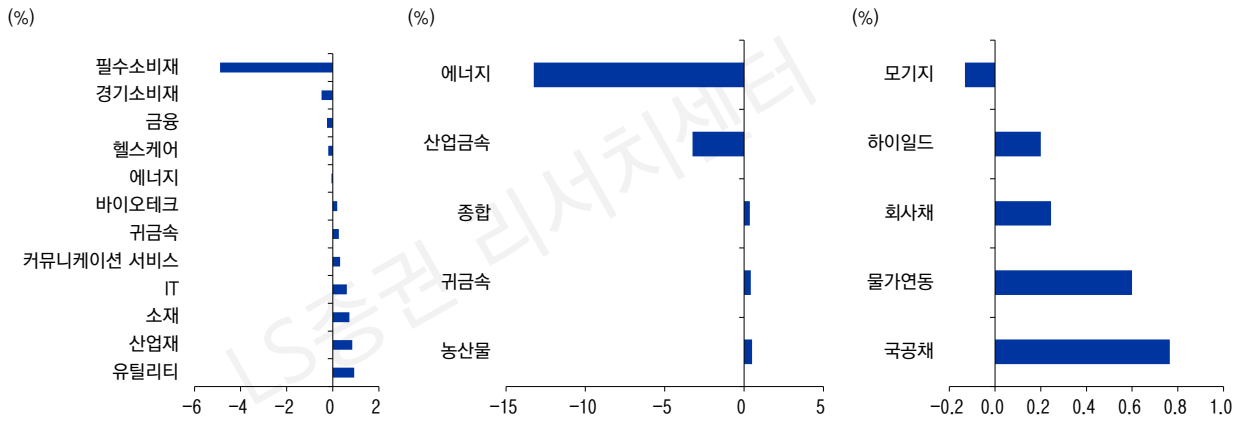
1. Weekly Fund Flow Review

- 종전 기대감은 유효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지속
- 유가의 상방 압력이 높을수록 신흥국 대비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
- 결국 이익 모멘텀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증시의 아웃퍼폼 가능성 주목

불가피한 인플레이션,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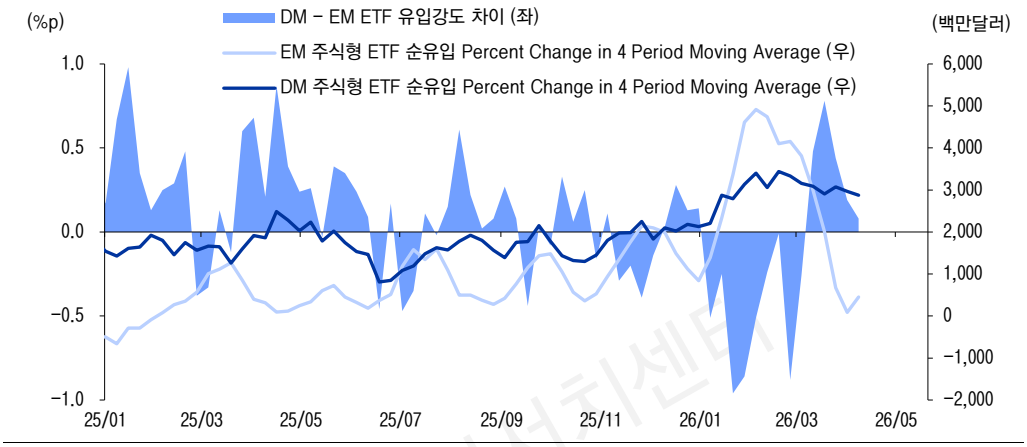
- 지난주(4/2~4/8) 자산별 펀드 유입 강도는 원자재(+0.27%) > 채권(+0.25%) > 주식(+0.13%) 순으로 집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자산별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를 반영하고 있음
- 이란발 불확실성이 피크-아웃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현 시점부터는 포스트 이란 전쟁을 고민해야할 때. 중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리스크라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국가/자산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 전쟁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ETF 유입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유입 흐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신흥국은 현저히 둔화. 이유는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에너지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 실제로 그림(3)을 살펴보면 유가의 상방 압력이 높을수록 MSCI 선진국 지수가 MSCI 신흥국 지수 대비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 가능
- 결국 이익 모멘텀이 증시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신흥국 대비 선진국 증시의 아웃퍼폼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 지수 간의 수익률이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할 것. 특히, 선진국 중에서도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미국을 주목할 필요

그림1 종전 기대감으로 유가 상방 압력 축소. 다만, 농산물, 물가연동채 등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자산군 펀드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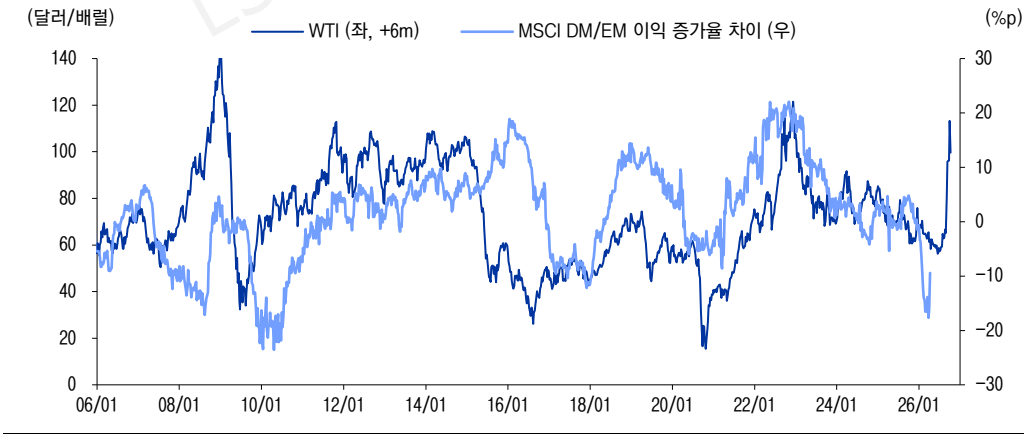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쟁 이후 DM 에 대한 유입 강도는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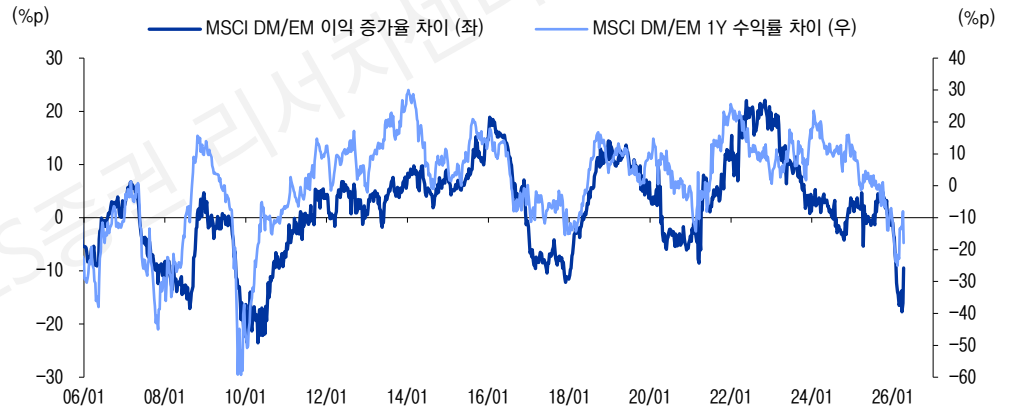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고유가 환경이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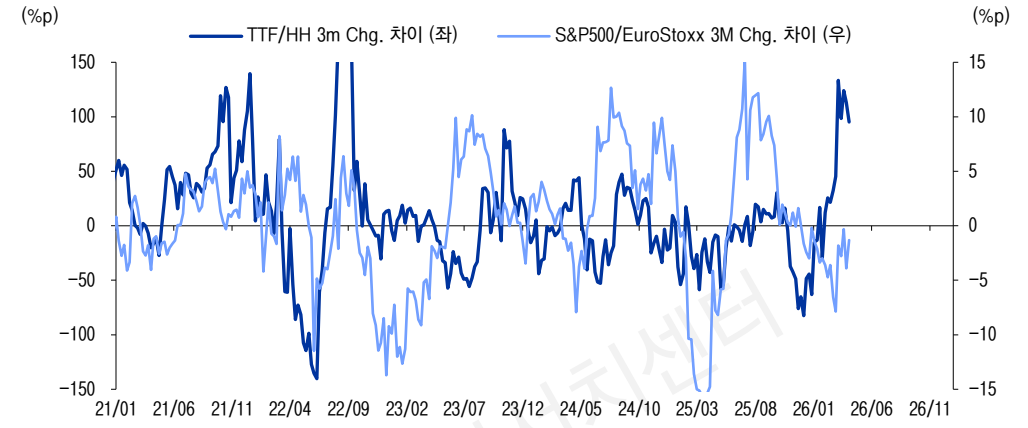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결국 이익 모멘텀이 증시 성과를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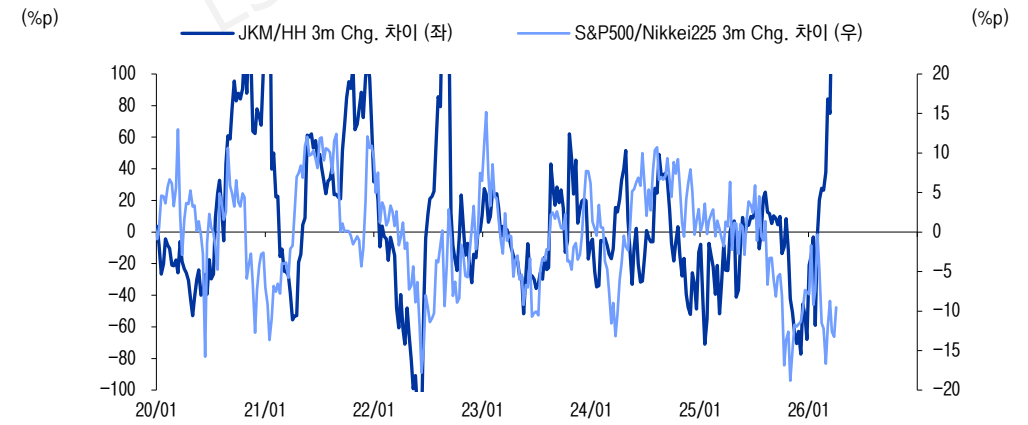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TTF(유럽), HH(미국) 천연가스 가격 차이.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을 주목할 필요①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JKM(한국, 일본), HH(미국) 천연가스 가격 차이.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을 주목할 필요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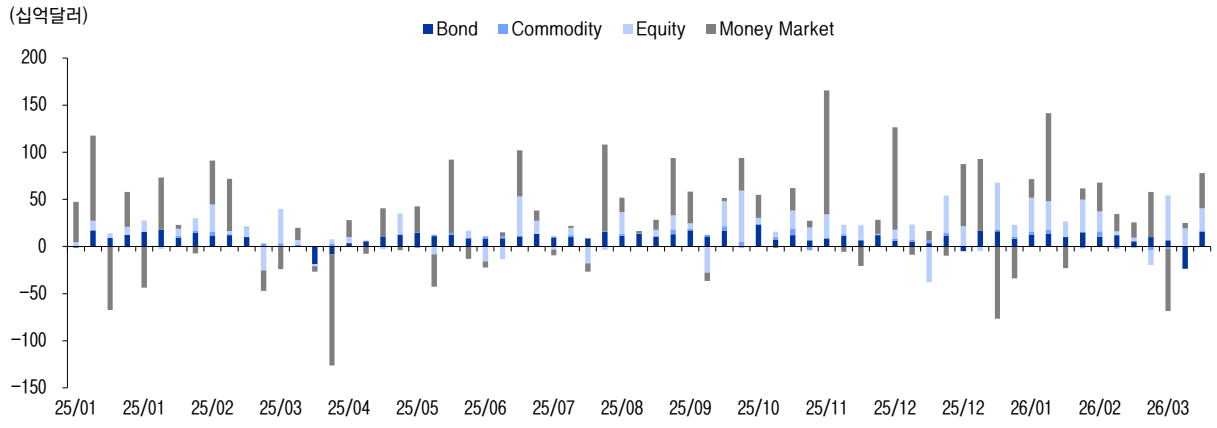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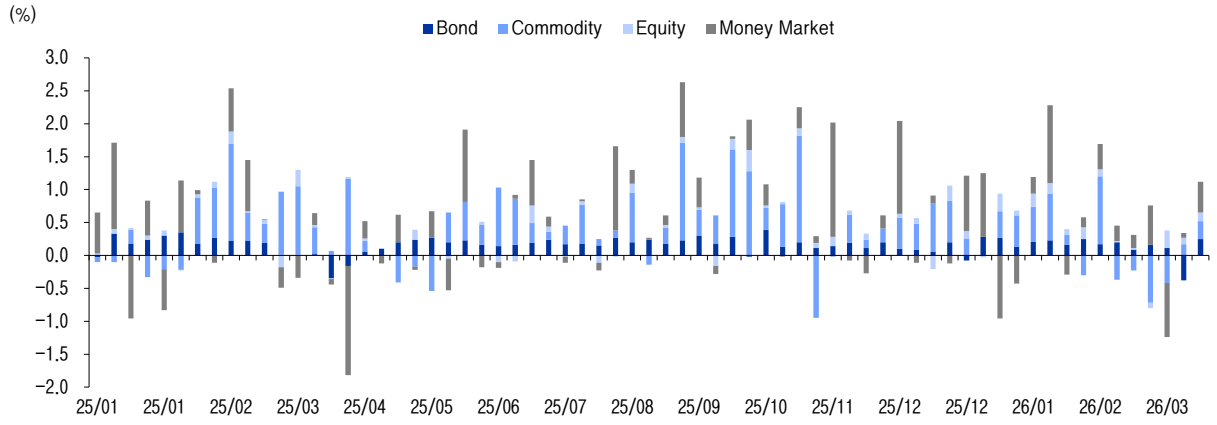
2. Global Fund Flow Brief

그림7 자산별 주간 Net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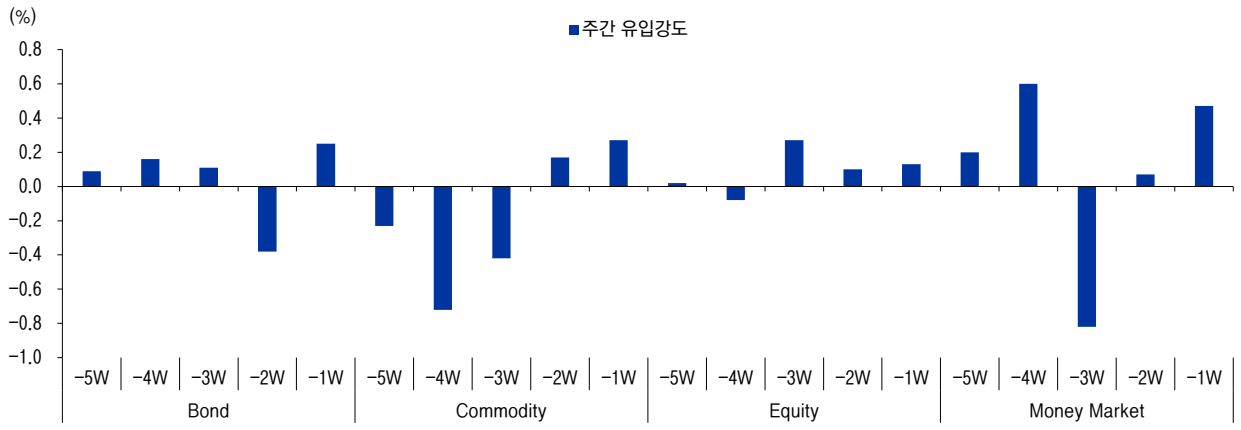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자산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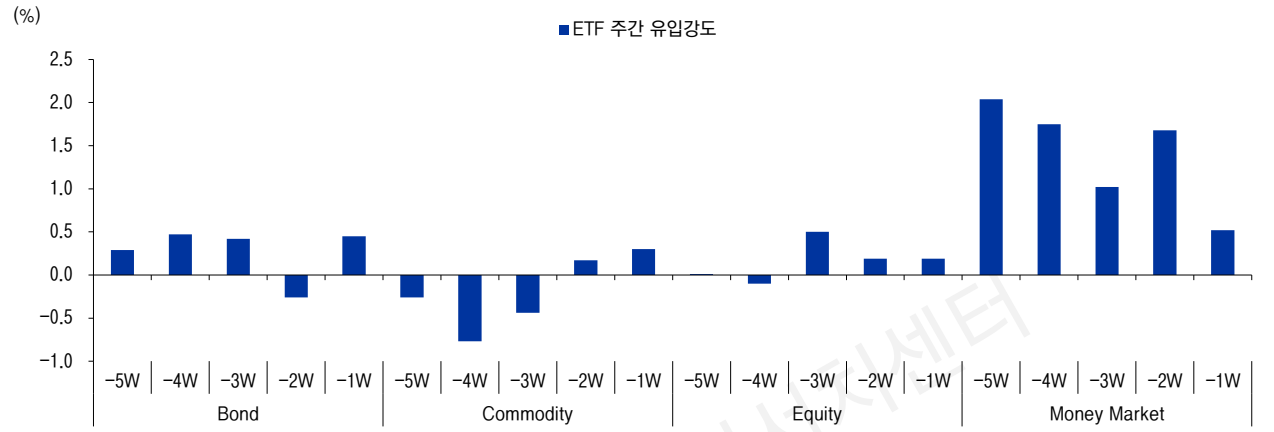
주: 유입강도: Net Flows/Total Net Assets*100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자산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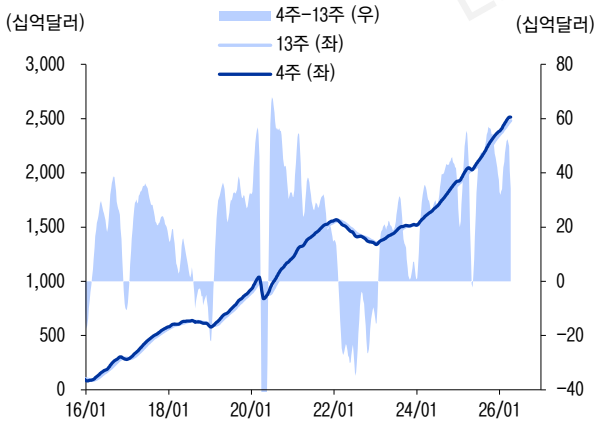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자산별 주간 유입강도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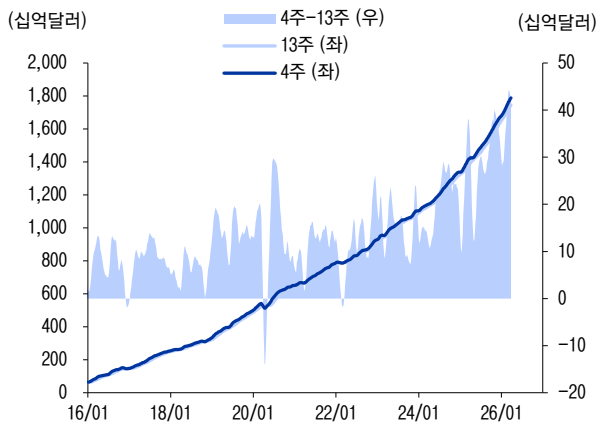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Bond Average Net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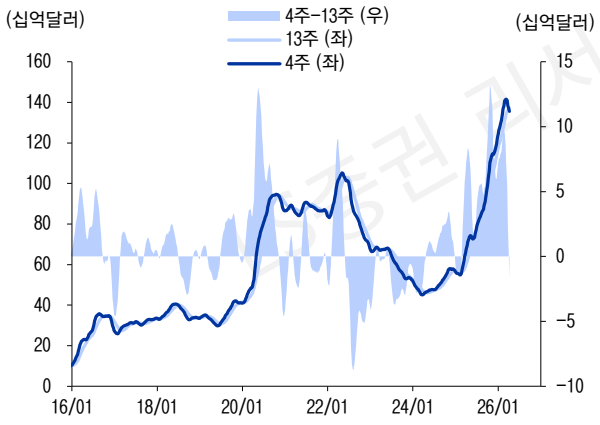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Bond Average Net Flow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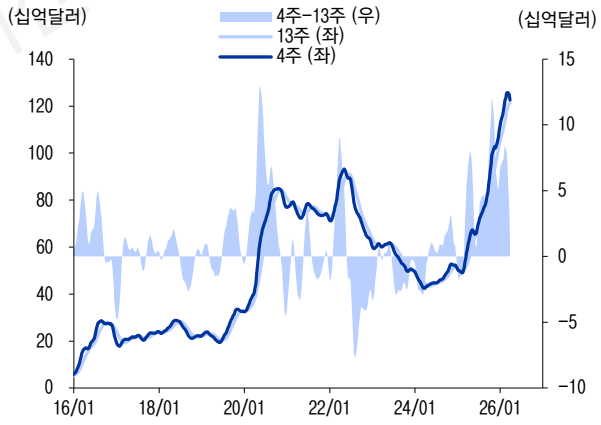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Commodity Average Net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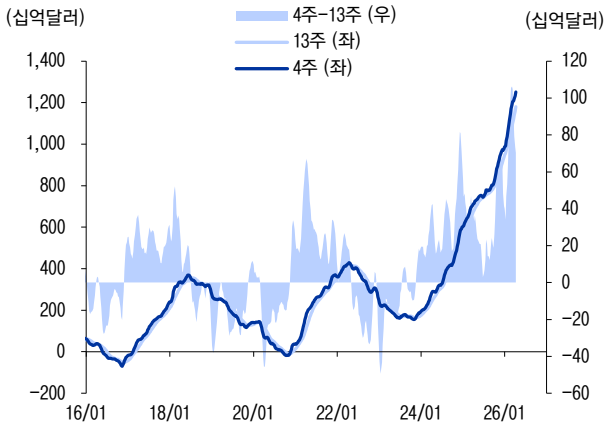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Commodity Average Net Flow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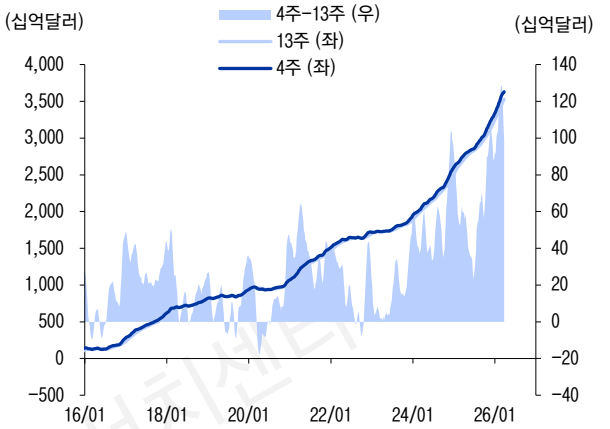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Equity Average Net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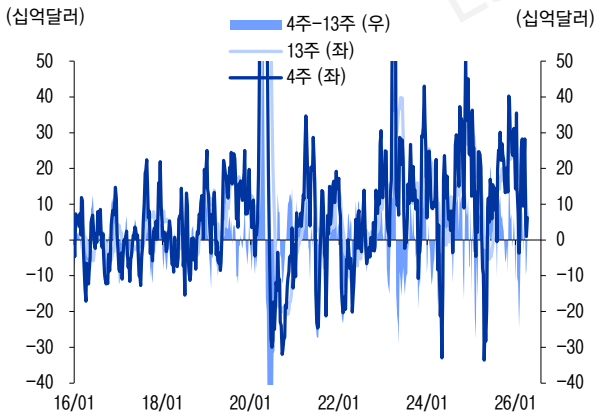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Equity Average Net Flow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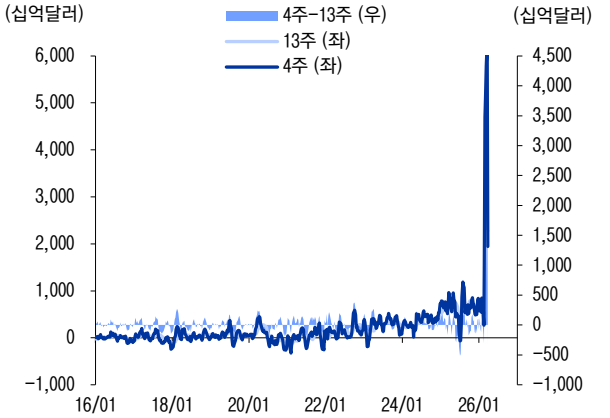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Money Market Average Net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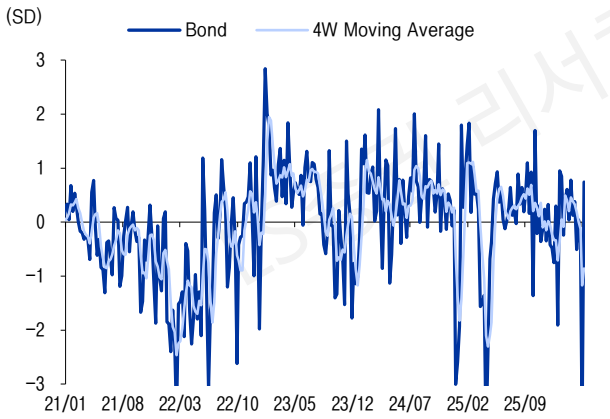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Money Market Average Net Flow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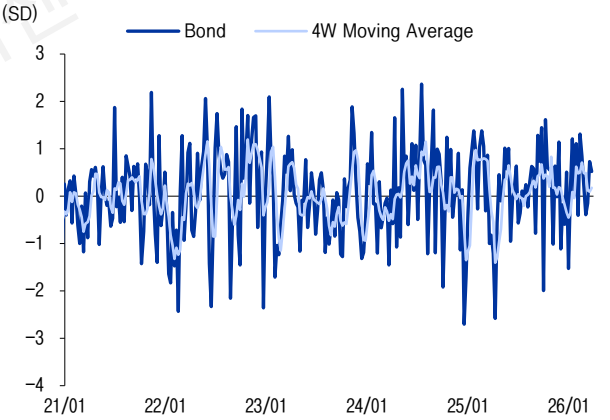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Bond 유입 강도(z-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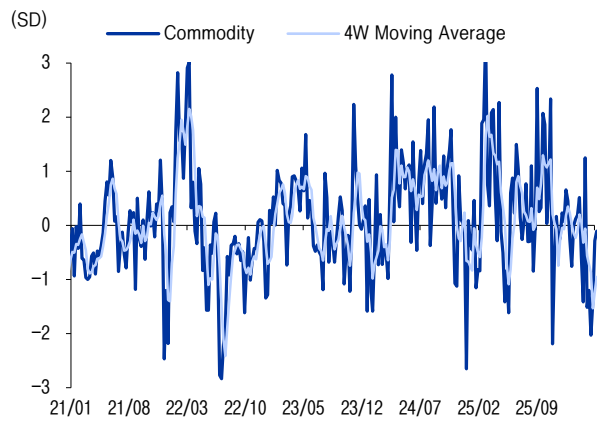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Bond 유입 강도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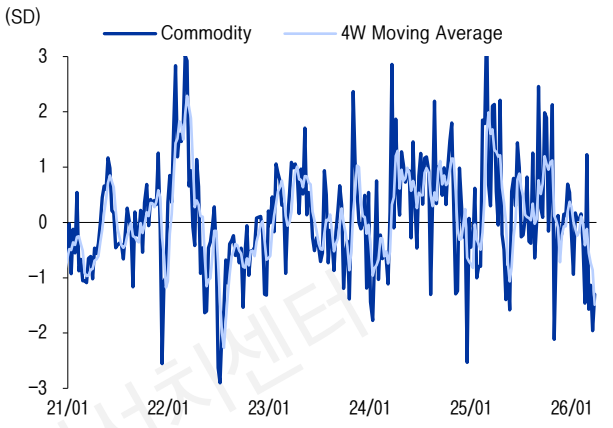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Commodity 유입 강도(z-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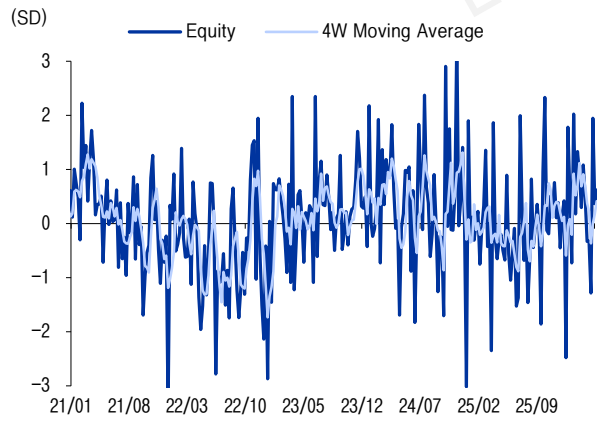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Commodity 유입 강도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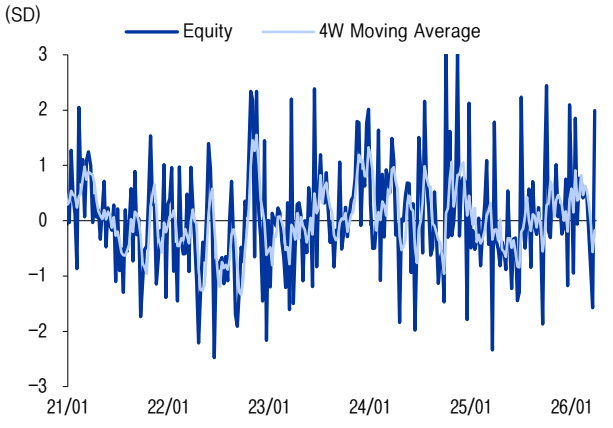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Equity 유입 강도(z-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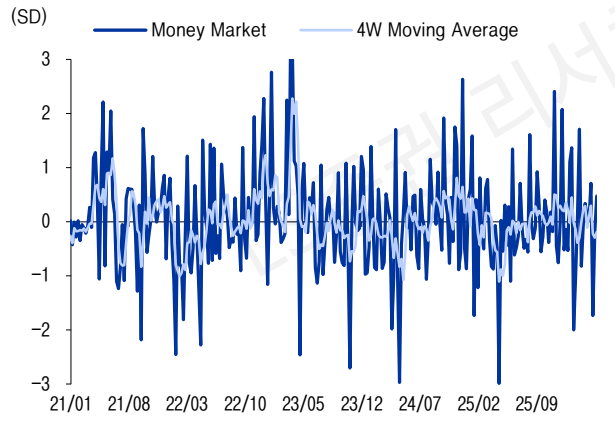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Equity 유입 강도 (Onl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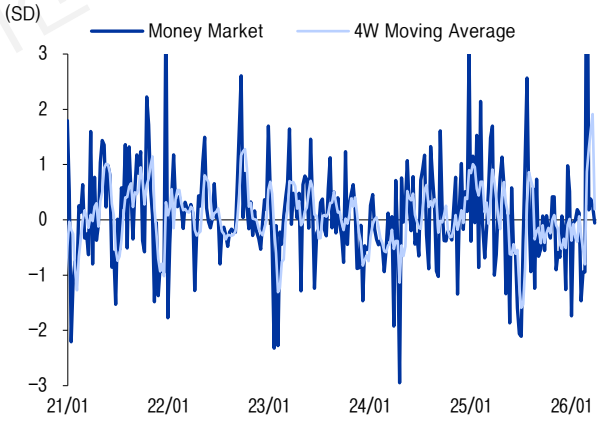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Money Market 유입 강도(z-scor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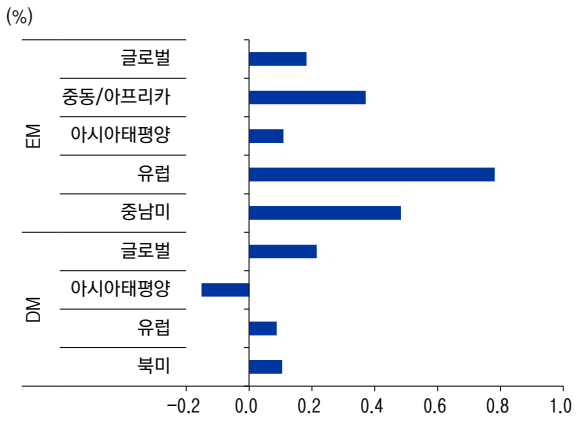
그림26 Money Market 유입 강도 (Only ETF)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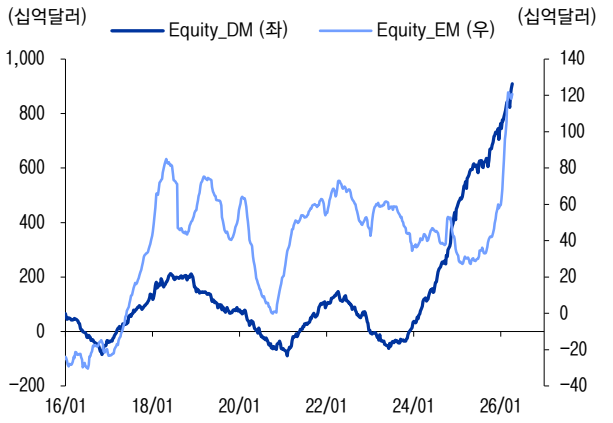
3. Global Equity Fund Flow

그림27 Equity 지역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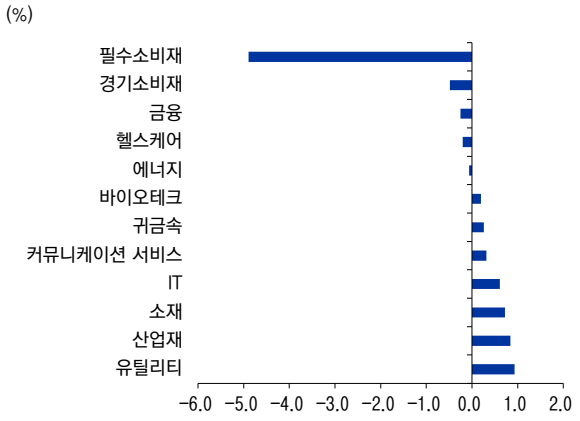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Equity DM/EM 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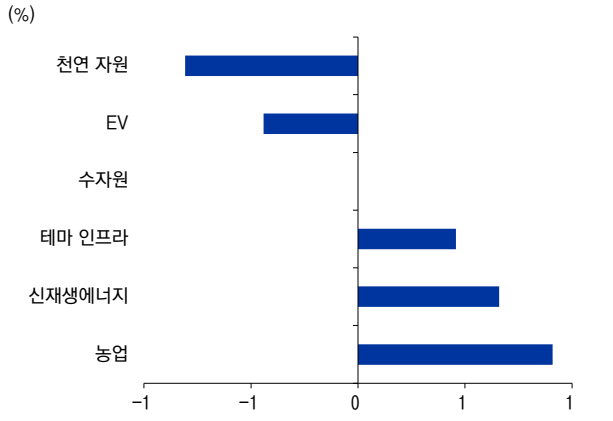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Equity 섹터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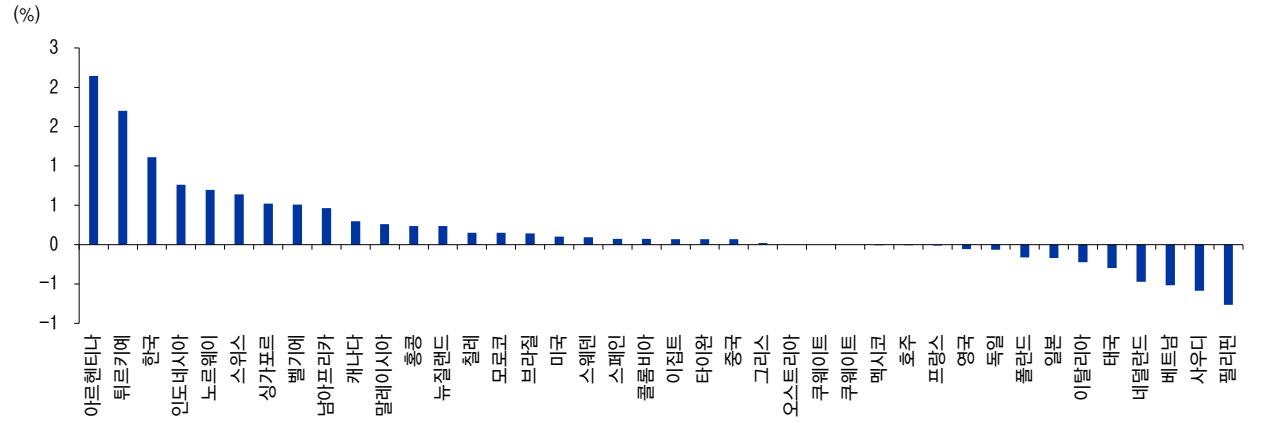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Equity 테마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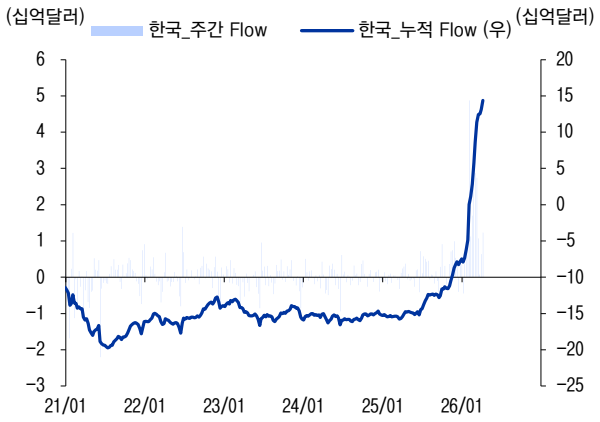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주식형 Fund 국가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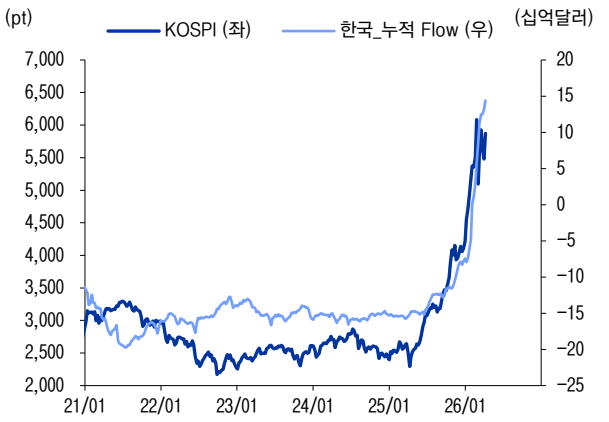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한국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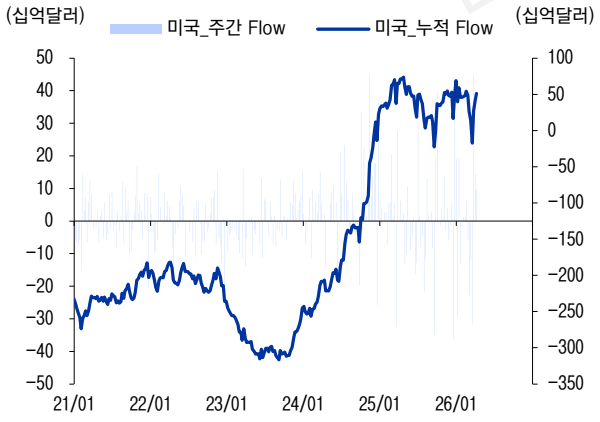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한국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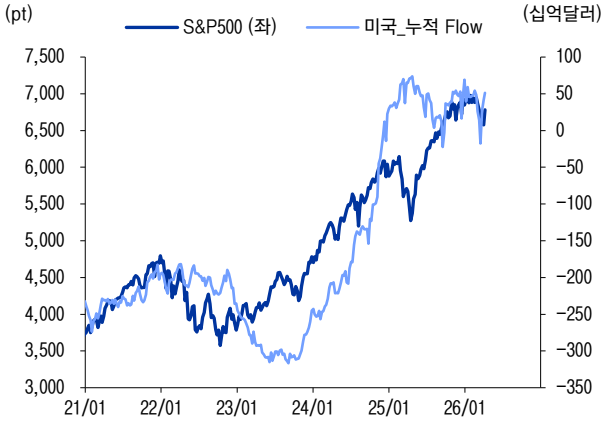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미국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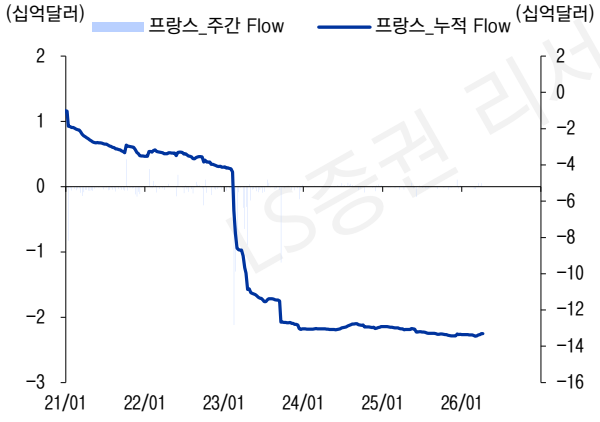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미국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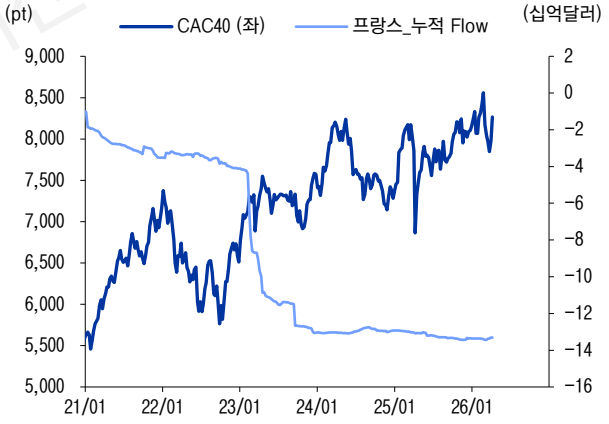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프랑스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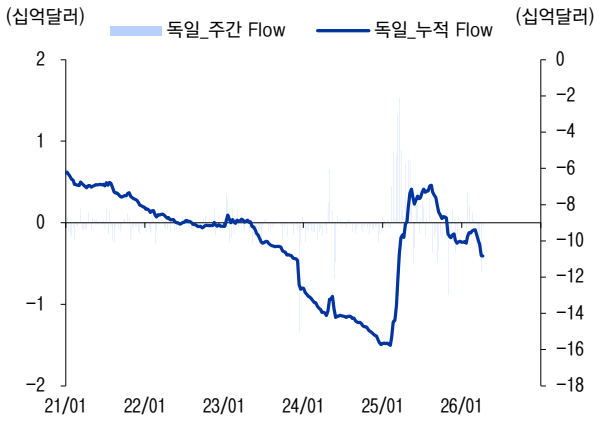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프랑스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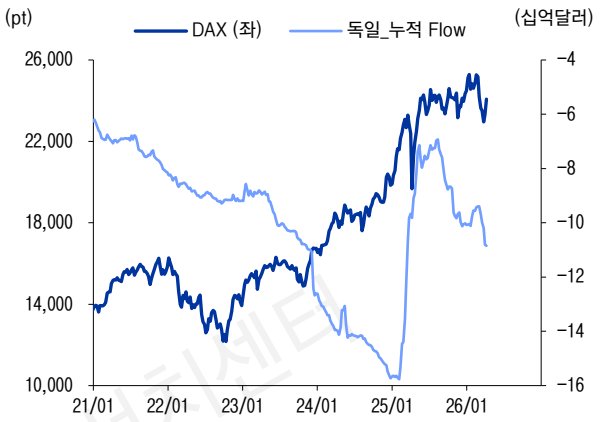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독일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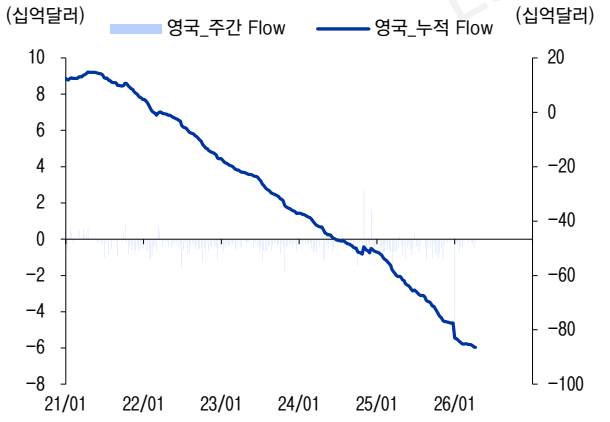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독일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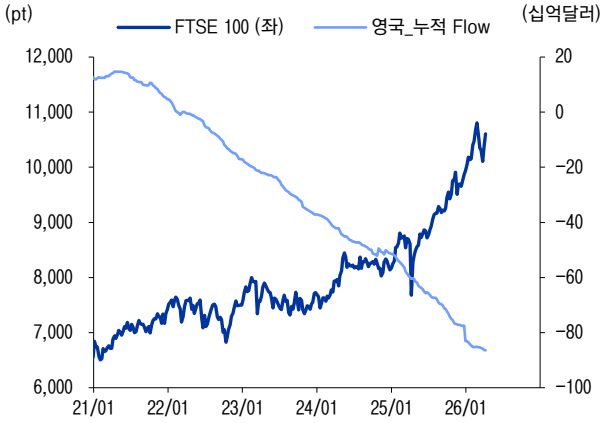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영국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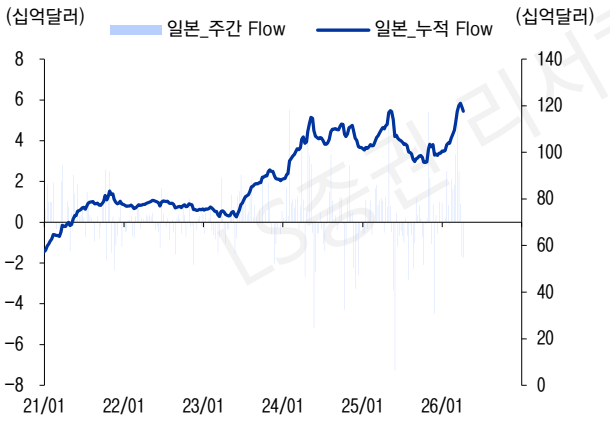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영국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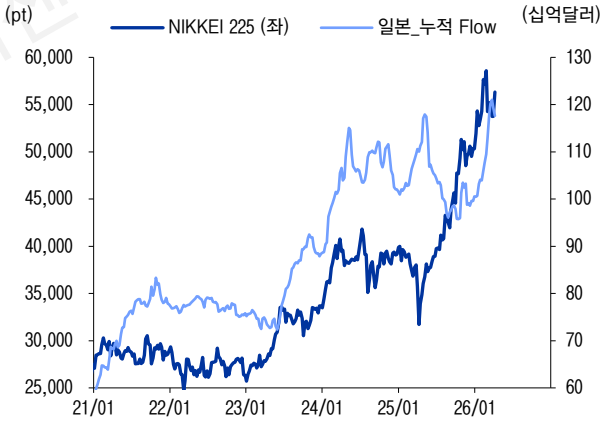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일본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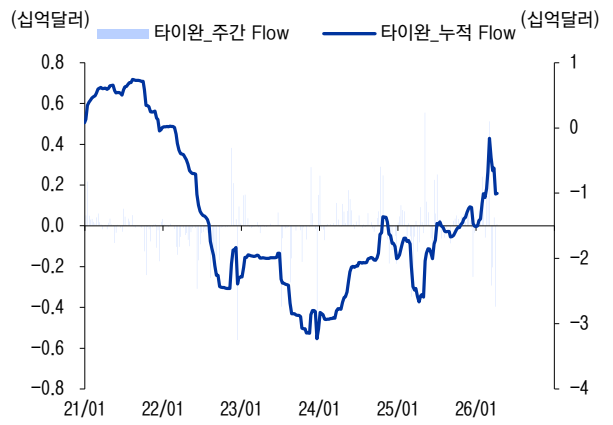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일본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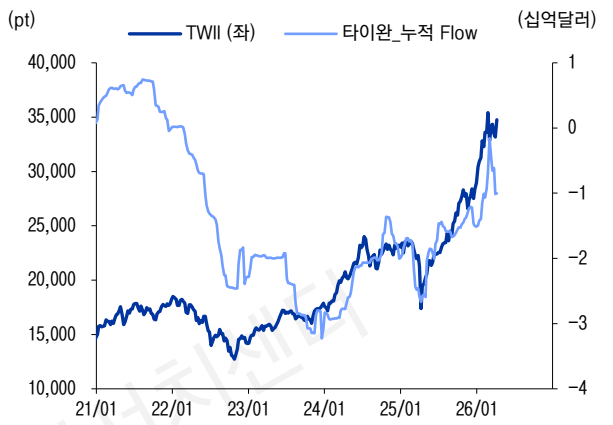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타이완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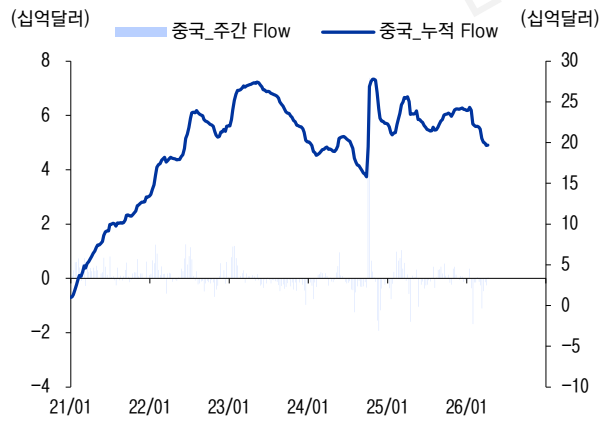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대만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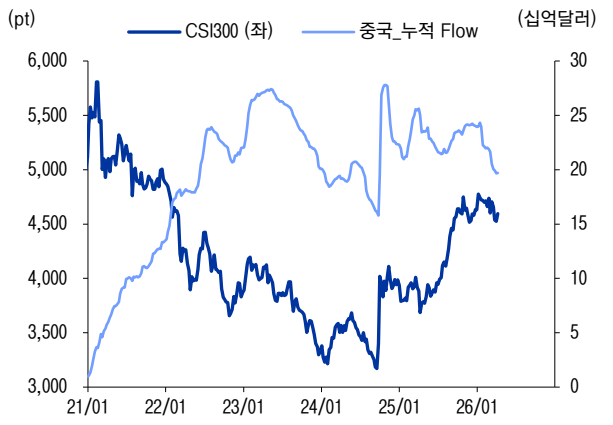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중국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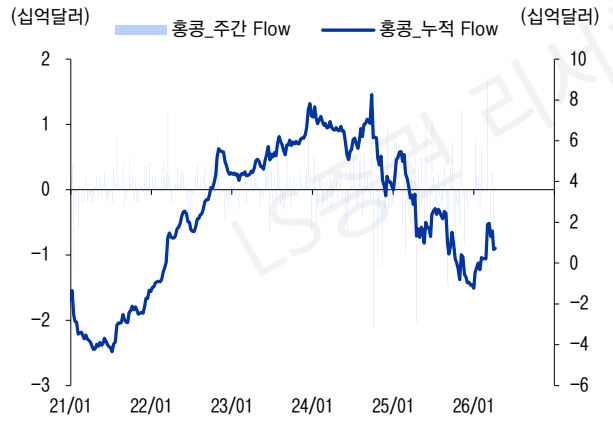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중국 누적 Fund Flow 및 증시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홍콩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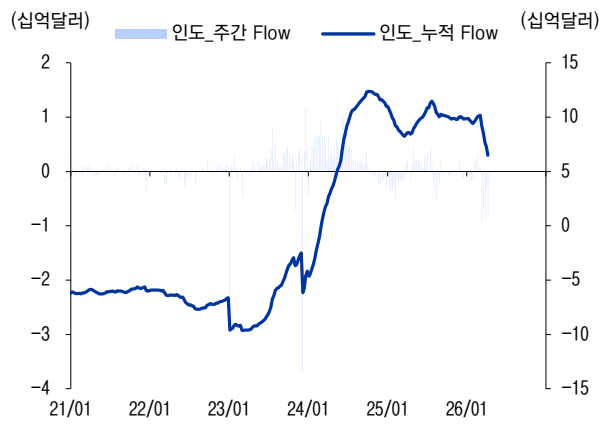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홍콩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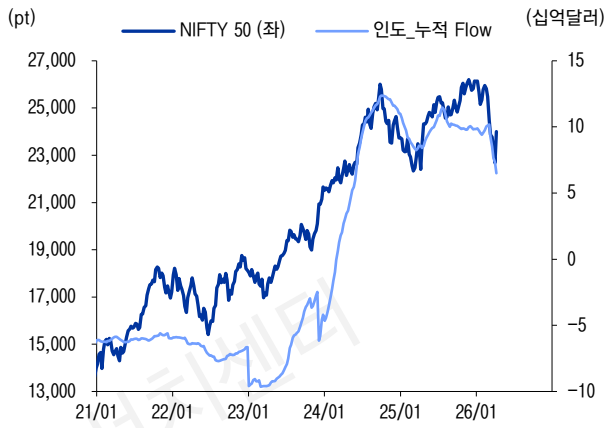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인도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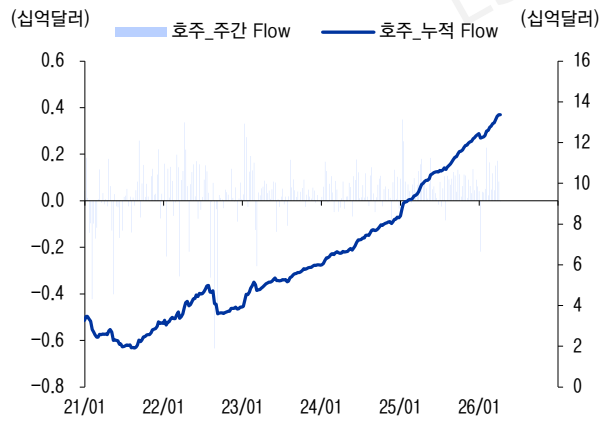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인도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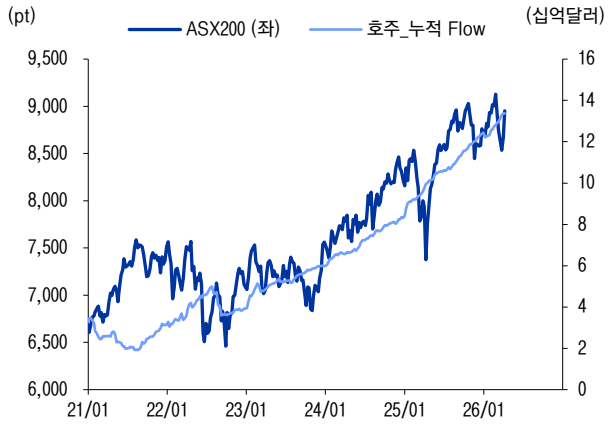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호주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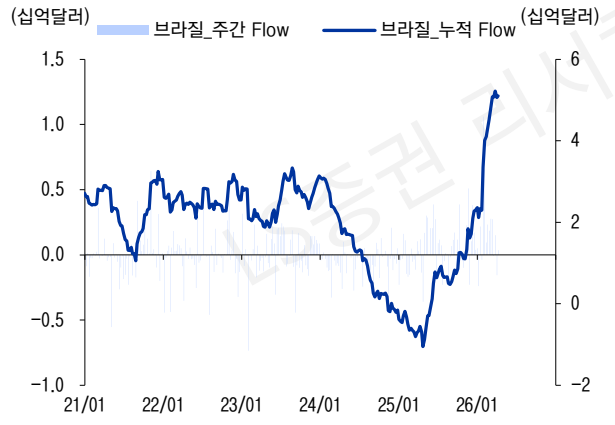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호주 누적 Fund Flow 및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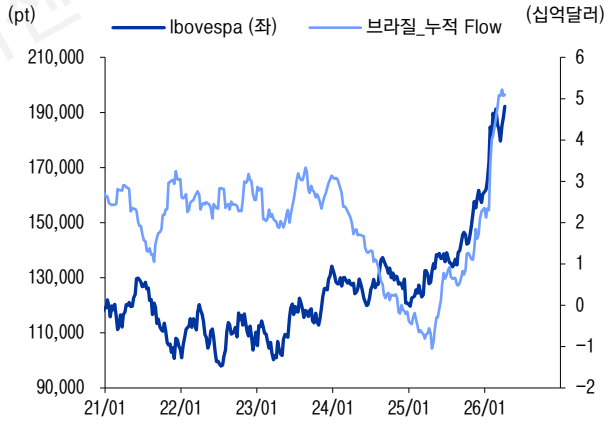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브라질 주간/누적 Fund Flow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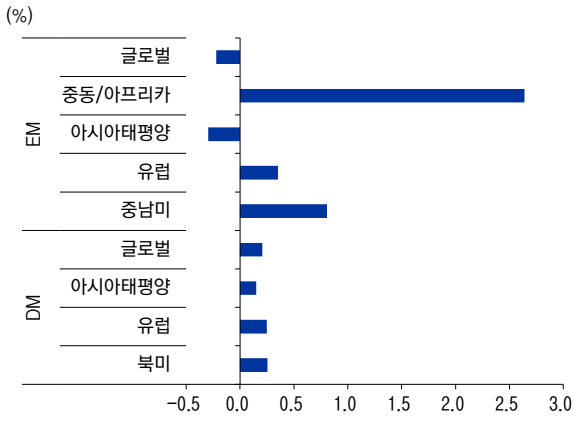
그림55 브라질 누적 Fund Flow 및 증시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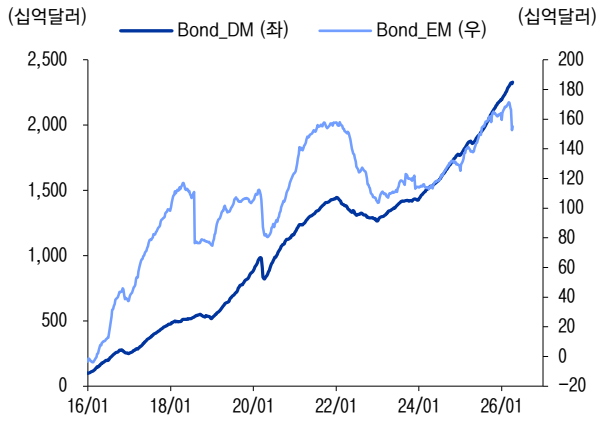
4. Global Bond/Commodity Fund Flow

그림56 Bond 지역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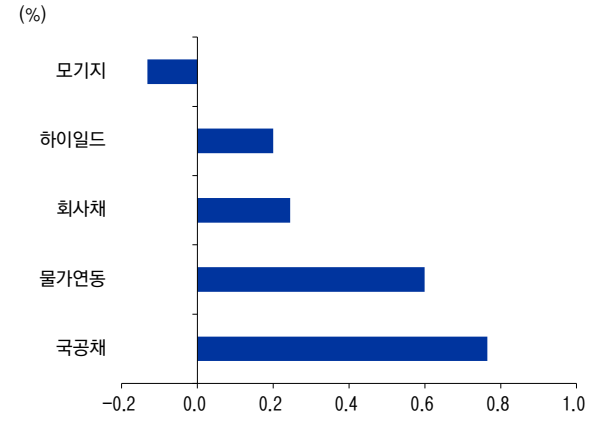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Bond DM/EM 지역 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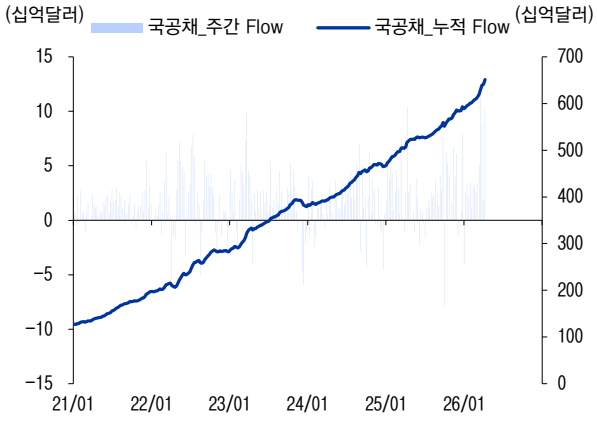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Bond 유형별 주간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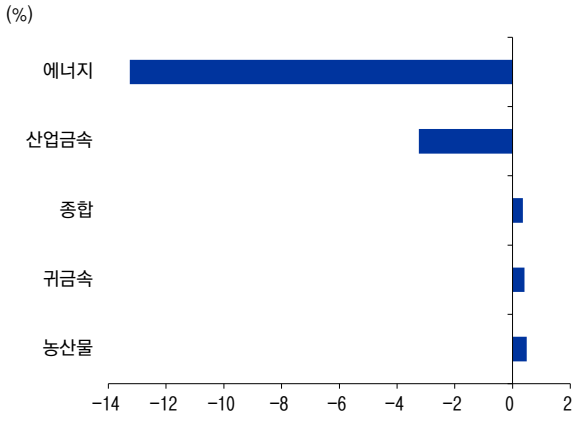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국공채 주간/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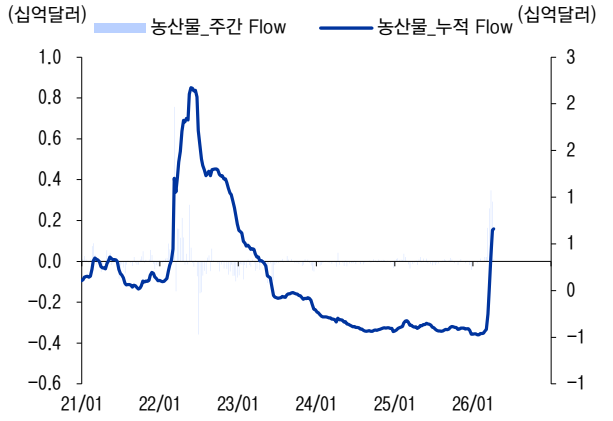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Commodity 유형별 주간 유입강도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농산물 주간/누적 Fund Flow



자료: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